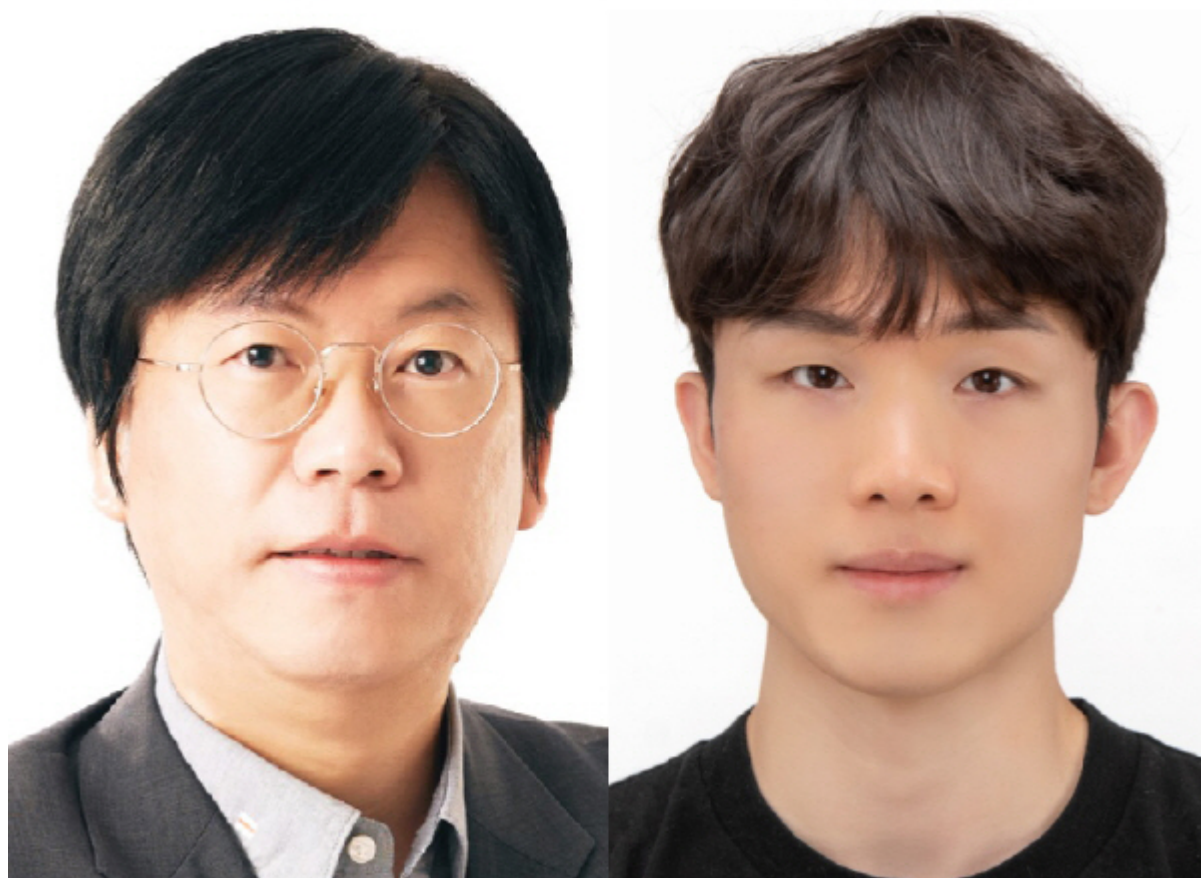


포스텍 한세광 교수팀, 기계-광학 메커니즘 기반 광 디스플레이 개발

✎ 광성일 기자 | ⓒ 승인 2024.02.25 17:33



왼쪽부터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·통합과정 김성중 씨

영화 ‘러브액츄얼리’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펜으로 꺾꺾 눌러 담아 스케치북으로 고백하는 장면은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았다.

그런데 물속에서도 이 달콤한 고백이 가능할지 모른다.

최근 포스텍(포항공과대학교) 연구팀이 바로 이런 물속에서도 손으로 썼다 지울 수 있는 광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모으고 있다.

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”며, “극한 환경에서 변화를 감지하는 웨어러블 광 센서 및 광 치료 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는 말을 전했다.

한편,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 지원사업과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사업,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 사업, 포스코 홀딩스의 지원으로 수행됐다.



곽성일 기자 kwak@kyongbuk.com